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일어나서 함께가자
- ◎ **연합부흥회:** 뉴질랜드 노회 주관 연합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18일 수요일에는 없습니다). 일시: 2014년 9월 18일 오후 7시30분 장소 분당 강사: 노진걸 목사(해외한인 장로회 총회장, 홀러톤 장로교회 담임)
주차 안내 : 외부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 가급적 본 주차장 보다는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세례자 예비 교육이 9월 14일 주일 예배 후(2시 50분)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매주일, 3주). 문답: 10월 5일 12시 세례식 10월 5일 주일예배
- ◎ **협조:** 본당용 노트북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환이 필요합니다. 기증하실 성도는 연락 바랍니다.
- ◎ **알림:**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해 옥션에 참여 했으나 구입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기도합니다.
- ◎ **감사:** 오늘 점심 준비한 통가 공동체와 새신자 환영회를 섬겨준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 ◎ **참여:** 오는 토요일(20일)에 있는 선거에 모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이사:** 강기동, 문지현 17 The Terrace North shore Auckland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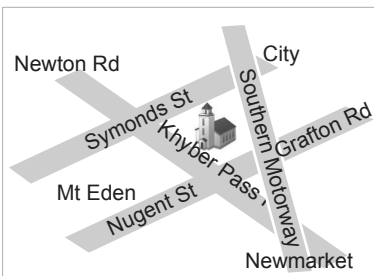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2014년 9월 14일 주일 16권 37호

꽃길에서 생긴 일

집 앞 큰 길에서 갑자기 경찰 사이렌이 울린다. 남편은 “또 걸렸다, 또 걸렸어, 아니 왜들 과속을 하는 거야?” 전갈으면 “그러게요.” 하고 맞장구 쳤을텐데 나는 못 들은척 나가 겨울비가 간간히 떨어지는 뒷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다.

얼마 전 장보러 나서기 전 습관처럼 우체통을 열어 보았다. 우편물이 하나 있었는데 내 앞으로 온 과속 벌금 통지서였다. 찍힌 사진속에 희끄무레하게 웃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번호판은 내 차가 맞다. 액수를 확인한 후 깜짝 놀라서 되돌아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짚어본다. 남편은 아직 안 갔어? 묻는 듯 쳐다보는데, 못본척 하고 아예 탁상용 달력을 들고 나온다. 차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아! 맞다. 가슴이 쿵소릴 내며 떨어진다. 그때 좀 달리긴 했지만 이렇게나 많은 벌금이 나올 줄이야.

그 날 그 길은 전형적인 뉴질랜드의 봄날씨로 지루한 겨울비를 견뎌낸 봄꽃들이 한껏 부풀어 있었고 곧게 뻗은 길 양쪽으로 이름 모를 가로수들이 한꺼번에 꽃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가끔 나를 불러내주는 친구가 달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웃고 떠들고 했었다. 몇 번 사양끝에 나왔는데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기분 좋은 하루였었는데, 그 길에 카메라가 있었나보다. 남편에게 비밀로 할 속셈으로 곧바로 지정된 은행으로 가서 결코 적지 않은 벌금을 내버리곤 속을 끓이고 있었다.

그 액수면 퍼머를 한 번은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짤 한포대는 살 수 있을 텐데, 또.....그 벌과금은 한동안 나를 괴롭히며 생활속에서 수도없이 산수를 하게 했었다. 그 일이 흐릿해질 즈음 남편이 외출에서 돌아온 나를 방으로 부른다. 그리곤 편지 한 통을 내보이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보기 드물게 화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주가 셋씩이나 되는 할머니가 과속이라니, 다른 실수는 몰라도 과속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면서...그 편지에는 당신에게 벌과금 고지서를 보냈었는데, 안 냈으면 빨리 내고 냈으면 됐고...대충 그런 내용이였다. 나는 “할머니는 과속도 못 하나 뭐. 그리고 그 길에 CCTV가 있는 줄 알았나고.” 당치도 않는 변명을 눈물과 함께 쏟아내니 남편은 어이가 놀러나간 표정으로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본다. 아마도 염치없음과 그 동안 감추어 오면서 겪었던 마음고생이 역을해서였던 것 같다. 아니 실패한 완전 범죄의 허망함일지도 모르겠다. 진작 고백했으면 어깨 토닥이며 오히려 위로하고 속상한 마음을 함께 했을텐데...

쇠스랑에 찍혀 나오는 뿌리채소처럼 묵은 후회들이 끌려 올라오는 잠이 안오는 밤이 있다. 수십년씩 묵은 크고 작은 잘못도 그 분은 회개했느냐? 안했으면 빨리 하고 했으면 됐다...하지 않으시고 무던히 참고 기다려 주신다. 이리기에 이 나이에도 저 깊디깊은 우물속 같은 옛날의 소소한 잘못까지도 되돌아 볼 수 있는 때를 주신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나이들며 밤잠이 줄어든다는 것도 또한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라는 그 분의 계획이 아닐까 싶다. -이경자권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시편 96:7-8
찬양대
다함께
10장. 전능왕 오셔서
84. 히브리서11장
사도신경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박병민 장로
사도행전 26:1-12
나무십자가 찬양대
내가 사는 이유/이태한목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연합부흥회로 인하여 이번주
수요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이예찬 형제

☉ 9월 교회악기

2여선교회 수련회: 9월 6일(토)
새가족 환영회: 9월 13일(토)
연합부흥회: 9월 18일(목)
성찬주일: 9월 28일(주일)

☉ 9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철재/김현주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없음
다음 주일: 최광암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9월 24일 수요: 이기중 권사
9월 24일 애찬: 김선화 집사
9월 28일 주일: 현석호 장로
9월 28일 청년부: 최정인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신앙중심, 교회중심, 말씀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생업의 어려움, 비자문제, 건강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9월 새벽기도회 본문

19일: 에스라 4:1-10 유혹과 방해 속에서 믿음의 순수성 지키기
26일: 에스라 8:1-20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 가라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증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의 소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 동북부에 위치한 “몬돌끼리”라는 지역에 안식년 중이신 선교사님 센터교회를 잠시 섬기기 위해 와 있습니다. 이곳 “뜨러빠양크정 생명나무센터”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복토, 담장공사와 임시배수로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별도의 학사, 유치원을 건축하기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센터는 현재 주일예배를 드리는 청-장년과 아이들이 전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여 100여명을 넘어섰고, 아이들의열정도 우기중임에도 예배인원이 감소하지 않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언어교실은 55명이 수업을 받고, 10월 개학때는 50~70명의 학생들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앞으로 제자양육과 유치원사역을 해야하는 2기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슬랩랭틀록 생명나무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소원함이 있어, 현지와 후원 성도님들 덕분에 대지(262평)를 구입하였고, 건축을 위한 제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온 교우들이 기도와 마음, 물질의 헌신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배인원이 감소하였는데 저희는 실망보다는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교우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후에 다시금 증가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청-장년 25명, 아동-청소년 100여명이 정기적으로 예배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센터교회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2. 두고 온 저의 사역지를 섬기는 동역자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